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해녀와 물고기의 형상을 통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이 승 수

해녀와 물고기의 형상을 통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민 성 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이 승 수

# 인 준 서

이승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해  
녀  
와

물  
고  
기  
의

형  
상  
을

통  
한

조  
형  
성

연  
구

이

승

수

## 논문개요

지난 20세기는 인류역사에 있어 과학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승리”의 한시대를 특징지었다. 이 기간동안 인류의 과학적인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는 이러한 “승리”의 원동력이자 결과물로 인류의 삶의 모습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원시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 인류의 역사의 초기에 있어서 자연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편이와 안락을 누리게 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복과 이용”의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정복과 이용”에서 인류의 눈부신 승리는 오늘날 “물질과 정보의 풍요”와 종집단의 전지구적적 지배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근원적인 결여와 극복하지 못한 새로운 상실감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상실감”은 사람들의 친자연적 지향성의 근본적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러 본인은 자연이 인류의 근원적 자기 “정체(Identity)”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류가 스스로 자연을 타자화 함으로 해서 누렸던 자연에 대한 “승리”에서 더 나아가 “인간성” 또는 인류에 내재된 “자연성”의 상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해석과 그에 기반한 조형화 작업은 인간이 자신을 ‘자연내의 존재’로 인식해온 동양적 세계관을 통해 특히 강하게 고무되었으며, 본인의 작업이 어떠한 사유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물인 작품이 무엇을 지시하는가를 설명하는 목적이다. 그리하여 이를위해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설정에 대해 견해와 작품의 형성의 배경, 조형적인 표현방법 및 개별 작품설명 등 총

3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동양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에 “내재된 자연”이라는 주제설정에 대한 견해와 그것을 전형화 하고 형상으로 드러냄이 작품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를 설명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의 형태로서 고향 제주도의 대표적인 “전형”인 해녀와 물고기의 이미지가 사용된 소재와 표현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별 작품의 설명을 위해 작품사진과 작품의 제작방법, 내용 등을 서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총괄하여, 본인 작품의 궁극적 목적을 서술하고 앞으로의 작품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4
1. 작품 형성의 배경 .....	4
2. 작품의 표현방법 .....	8
1) 형태적측면 .....	8
2) 재료적측면 .....	10
3. 작품분석 .....	12
III. 결론 .....	26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자연과 인간의 공존, 850×500×160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2003 .....	12
【작품 2】 자연과 인간의 공존, 500×500×30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2003 .....	14
【작품 3】 자연과 인간의 공존, 2700×1200×250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오석 2004 .....	16
【작품 4】 자연과 인간의 공존, 1050×1000×130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2004 .....	18
【작품 5】 자연과 인간의 공존, 1700×500×400mm, 동, 2005 .....	20
【작품 6】 자연과 인간의 공존, 1400×1850×165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2004 .....	22
【작품 7】 자연과 인간의 공존, 1000×900×1850mm, 동, 오브제, 2005 .....	24

# I. 서론

자연은 인공적인 도움 없이 만들어졌고 인간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모든 것, 또는 산, 강, 바다, 초목, 동물, 비, 바람처럼 저절로 생성하고 소멸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것을 의미<sup>1)</sup>한다. 이와 같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인간도 생성되고 소멸해 가는 하나의 생명체이고 근본적으로 자연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자연은 태초로부터 “스스로 존재” 하였으며, 인류의 도움 없이 만들어졌고 인간의 합리적 의지와 무관히 “탈가치적”이고, “우연적”이다.<sup>2)</sup> 반면 타자화된 자연은 우리가 그것을 “환경”이라고 표현하는 순간의 그 자연이다.

그리하여 자연은 스스로의 존재를 인간에 의존하지 않듯이 스스로의 내적 구성원인 인류에 대한 영향 역시 “선하거나 약하지”않다. 그리하여 본인의 사유과정에서 발견한 “자연”은 “좋은 것” “선한것”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다. 자연을 가치론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주의적 경향과 본인의 사유과정은 구분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연에 대해서 그것이 인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의 자연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결여를 전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은 통상적인 ‘환경보호’라는 의미, 즉 타자화된 자연에서 한발짝도 넘어서지 못한 것이기 때문

---

1) 한국세계대백과사전 「동화문화사」 2000, p13309

2) 이른바 법칙이나 필연 또는 가치와 같은 단어들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개념들이다.

이다. 본인의 관심은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그것이 이 논문이 사유하는 본질이 될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타자화 함으로 해서 이룬 승리의 이면에서 타자화된 자연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며, 이를 형상화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연에 대한 타자화가 어떻게 스스로를 소외, 왜곡시켰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며, 그들의 상실감을 형상화 할 것이다.

형상화의 임무를 가진 본인에 있어서 사유는 형상화되어야 한다. 본인의 개인사에 있어 형상적 상징으로서의 자연은 성장과정 전반을 지배한 제주도로 귀결된다. 제주도는 본인에게 있어 평화의 공간, 명상의 공간이었으며, 더불어 가족과 그 가족이 치러내야 할 삶의 버거운 역사가 내재된 공간이었다. 그리하여 이 형상화의 구체적인 주제는 해녀라는 인간적인 형상체와 물고기라는 자연적인 형상체이다.

본인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왔으며’ ‘어떠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가’란 관점으로 제주도를 형상화 하려했다. 이 형상화 작업이 양자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없음을 물론이다.

단지,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본인은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타자화된 자연으로부터 비롯되는 상실감과 소외가 서구의 근대적 이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중심주의와 기계론적 세계관에 근거한다는 점과, 그것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반성 역시 과편화된 사변들로 분산되어 해석방법으로서 또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보편적인 모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자연과 인간의 화해 모델로 제시된 동양의 일원론인, 전체의 조직체계로서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작용하여, 한 부분이 훼손되면 다른 부분과 더불어 파괴된다는 일체적 사고방식인 전일적 세계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의 근원적 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인은 작품7점은 이러한 사유과정과 그것의 형상화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통일된 두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사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동양적 세계관에 바탕하여 자연과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정신적 가치의 필연성을 유추하고, 자연의 상징물인 물고기와 자연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해녀의 형상을 소재로 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상생 이미지로 조형화하고자 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방법인 본인의 경험으로써의 자연관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사유과정을 근거로 주제설정에 도입된 방법론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도입된 소재들의 의미와 표현방법 그리고 조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 형성의 배경

자연은 그 전체의 크기가 무한이므로 일정한 형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만들어 내며 인간에게 심리적,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행사한다. 특히 자연과 인간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예술가에게는 내면적 감성을 자극하고 저마다 독창적인 미적 세계를 형상화 시키게 한다.

본인은 제주도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에서 성장하며 한라산과 360여개의 오름들, 용암의 분출 형태를 간직한 해변 등 어느 지역보다 태곳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연과 그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했던 유년시절의 기억이 몸속 깊이 각인 되어있다. 그러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고립감으로 다가왔으며, 문화적 갈증에서 오는 소외감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성장이후 도시 생활은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반면 몸이 체득하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향수”<sup>3)</sup>를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신적 안정과 감성적 심미안, 환경적인 혜택을 누렸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본인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동·서양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단초가 되었다.

서구의 자연관은 이원론적<sup>4)</sup> 사상으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서

---

3) “nostalgia”는 인류의 근원성에 대한 회귀욕구로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성질이다.

이분함으로써 정신적인 것의 우위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을 주체로 보면서 자연적이며, 물질적인 것을 객체로 함으로써 주체인 인간이 객체인 자연을 마음대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서양의 자연은 인간과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서 정복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이래 서구 근대 사회를 지배해 온 이원론적 과학 체계는 20세기에 들면서 새로운 과학 발전에 의해 변화되었다.<sup>5)</sup> 즉, 입자물리학의 성과들은 우리가 물질 또는 입자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고도로 집적된 에너지의 다른 표상이며, 전기나 빛과 같은 에너지 역시 입자들의 다른 존재형태란 사실을 밝혀내었다.<sup>6)</sup> 과학적인 사고는 단지 기계론적인 것이 결코 아니고, 유기적·생태적인 견해 역시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을 현대의 과학(특히 물리학)에서 말해주고 있다. 20C에 들어와서, 과학은 몇 가지 개념적 혁명<sup>7)</sup>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

4) 이원론-세계의 통일성, 단일성을 부인하고 그 대신에 대립되는 성질로 이원성을 현실의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관념적 세계관.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철학대사전」, 동녘, 1994, p1093

이원적(二元的)사유구조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 육체와 정신, 이성과 감정 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도 작용한다.

이영찬 「유교사회학」, 예문서원, 2001, p23

5) 크리쇼프 카프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 1998, p39~40

6) 아인슈타인(Einstein, Albert)의 특수상대성이론에 이르러 전통적인 뉴턴적세계와 입자물리학의 통일을 보았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 $E=mc^2$ ”란 공식이 웅변하고 있는 바이다.

7) 현대의 물리학자 크리쇼프 카프라는 그의 저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 아인슈타인(Einstein, Albert)이 상대성 이론으로 과학적 사고에 혁명을 가져왔고,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해석으로 변화를 가져 왔으며 세 번째로 제프리 추가 부트스트랩 이론으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통합시켜, 기초 과학에 대한 접근 방법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단절 시키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sup>8)</sup> 현대 물리학이 동양적인 세계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자물리학적 틀로 본다면 물질만도 아니고 정신 또는 순수 에너지만도 아닌 “기(氣)”라는 개념을 이 세계에서는 일찍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일원론의 사상가인 서경덕의 말을 빌려 “기”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 “일편향촉(一片香燭)의 기라도 그것이 눈앞에 흩어지는 것을 보지만, 그 남은 기운은 마침내 흩어지지 않는다.”<sup>9)</sup>고 한다. 이는 물리학에서 밝히고 있는 에너지 항존율(恒存律)과 같은 서경덕의 일기장존설(一氣長存說)인 것이다.

동양의 자연관은 자연(自然)이란 한자 의미를 생각할 때 ‘거기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동양적 사유에서의 자연은 타자화된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닌 자연의 정신, 우주의 본체와 근원적 원리로서의 자연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과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여겨져 왔으며, 인간은 자연의 품속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중국의 회화에 있어 이러한 자연관은 물리적 자연을 형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물의 형상이 성립될 수 있게 하는 신(神), 영(靈)을 어떤 형상을 통해 그려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최고의 화경(畫境)은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정신으로 대상을 창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후대의 시인이나 예술가는 산·돌·흐르는 물들의 자연 경상(景象)을 단순한 물리적,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의 영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동양화의 주된 소재가 되는 자연은 단순히 바라만 보고 즐

---

8) 크리츨프 카프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 1998, p46~47

9) 이남영, “서경덕의 철학사상”, 한국철학사(한국철학회편), 동명사, 1987

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곳에서 ‘노닐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이다.<sup>10)</sup>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에 따름으로써 천지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성장과정에서 초기 제주도 생활은 본인의 온몸으로 부딪는 자연이었고, 도시 생활 부분에서 이 “접촉”의 단절이 주는 “상실감”은 그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었다. 본인은 이 근원적인 상실감 이라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무엇이라고 본다.

상실감의 회복,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할 수 있는 조건과 그것을 위한 사유과정은 동양적 세계관이 보여주는 세계와 하나됨으로 합일성을 중시하는 현상과 실제의 이분을 용납하지 않는 일원성<sup>11)</sup>에서만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으로 본다면 인간과 자연이 같으며 생물계의 한 생물종과 먹이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자연의 한 종으로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고, 자연이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전체의 조직체계로서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작용하여 한 부분이 훼손되면 다른 부분과 더불어 파괴된다는 일체적 사고방식이 자연과 인간의 회복을 위한 정신적 가치의 필연성을 제공해줄 것이다.

---

10)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8, p416

11) 주혜원, 「자연을 통한 내적 공간표현」 이화여대 대학원 논문, 2005, p5

## 2. 조형적 표현방법

### 1) 형태적 측면

자연은 인간에게 예술 활동의 무한한 소재를 제공해 왔으며, 인간은 그 앞에 펼쳐진 자연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느끼면서 체험한 감정들을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해왔다.

본인은 성장과정 속에서 느꼈던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했다. 그것은 물론 그 속에서 삶의 방식을 조정해 나가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야기이다. 해녀와 물고기의 조형은 이 통일된 자연에서 각각의 성원이 맺은 다각적인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추출되었다.

제주도의 ‘해녀’는 사실과 사유의 등가물이다. 해녀는 자연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위협받고, 그 속에서 고단해 하는 ‘인류’라는 종집단을 대표한다. 더불어 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해 스스로의 ‘존재성’을 위협받는 존재이다. 본인은 경험적 존재로서 해녀의 몸, 해녀의 생활을 통해 생명의 순환에 긍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해녀가 사용하는 물안경과 오리발은 인류의 자연에 대한 근원적 근원적 “공포와 경외”를 표상한다. 뿐만 아니라 삶의 고단한 노역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성적 의지를 상징한다. 그리하여 그 개별적인 재료들은 다시 해녀로 총화된다. 제주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해녀는 그리하여 “상실”되어가는 존재이다.

물고기 또한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이며, 자연의 상징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바다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작용을 한다. 작품 전반에 걸쳐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해녀가 실제 공간의 문맥을 제공한다면, 선재의 구조물로 구형을 이루고 있는 물고기는 생략과 비움의 은유적 공

간을 통해 해녀의 변성 과정을 유도하고 있다.

선재구조물의 기본개념은 철사 테두리로 공간을 정의하여 ‘공간 속에 드로잉’을 하는 것<sup>12)</sup>으로 이는 조각의 전통적인 특성인 견고함과 무게감에서 벗어나, 조각이 하나의 덩어리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간을 수용하고 공간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공간으로 조각 작품이 이루어 해녀와 물고기의 즉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상생을 표현하는데 유효한 조형화 방법이 되어주었다.

【작품 1. 2. 3, 4. 5】를 보면 해녀와 물고기의 두 이질적 공간은 따로 존재하되 이웃하여 함께 작용하면서 유기적 결합 관계를 연상시키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 낸다. 해녀와 물고기는 조용하게 정지되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되어 해녀를 품기고 하고, 해녀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해녀와 물고기는 차원에 따라 안팎이 달라지고 고정적이거나 단일한 배치를 벗어난다. 또한 속이 빈 물고기의 투명성은 물고기를 개념적 공간으로 밀어 넣는데,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녀에게서도 채우고 비우는 공간표현은 자연속의 인간과 인간속의 자연의 동시적 공존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녀의 몸을 들고나는 작은 물고기의 중첩과정은 장식적 부산물이 아니라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암시하는 이중 동시적 은유적 표현이었다.

【작품 6. 7】에서 등장한 산업 폐기물은 현대문명의 상징물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버려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머리만 남아있는 물고기, 폐기물로 만들어진 로봇과 같은 형

---

12) 립시츠는 1925년27년 사이 “속이 들여다보이는 조각, 즉 한 번에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물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조각을 시도했다.

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미진사, 2001, p114.

체, 폐기물을 몸속에서 키우는 물고기, 구멍이 뚫린 불완전한 물고기들 이러한 표현은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한 생태적 위기, 인간소외,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점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 2) 재료적 측면

미술의 재료와 기법은 작가의 표현양식이 된다. 즉 재료와 기법은 작가의 창작을 돕고 그 의도의 외적인 존재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구체화 시킨다. 조각에 있어서 재료는 물질 자체가 갖는 특성과 가공 상태 또는 선택되어진 상태의 모습으로 작가의 사유에 적극 개입한다.

본인의 작품은 흙을 이용한 소조작업을 거쳐 동과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금속재료를 가지고 금속을 녹여 직접 연결하거나 용접봉을 사용하여 금속을 서로 연결하여 형상을 만드는 조각방식인 용접조각이다. 또한 작품의 표현의도와 재료의 성질에 따라 주조(casting)기법과 다양한 용접기법을 혼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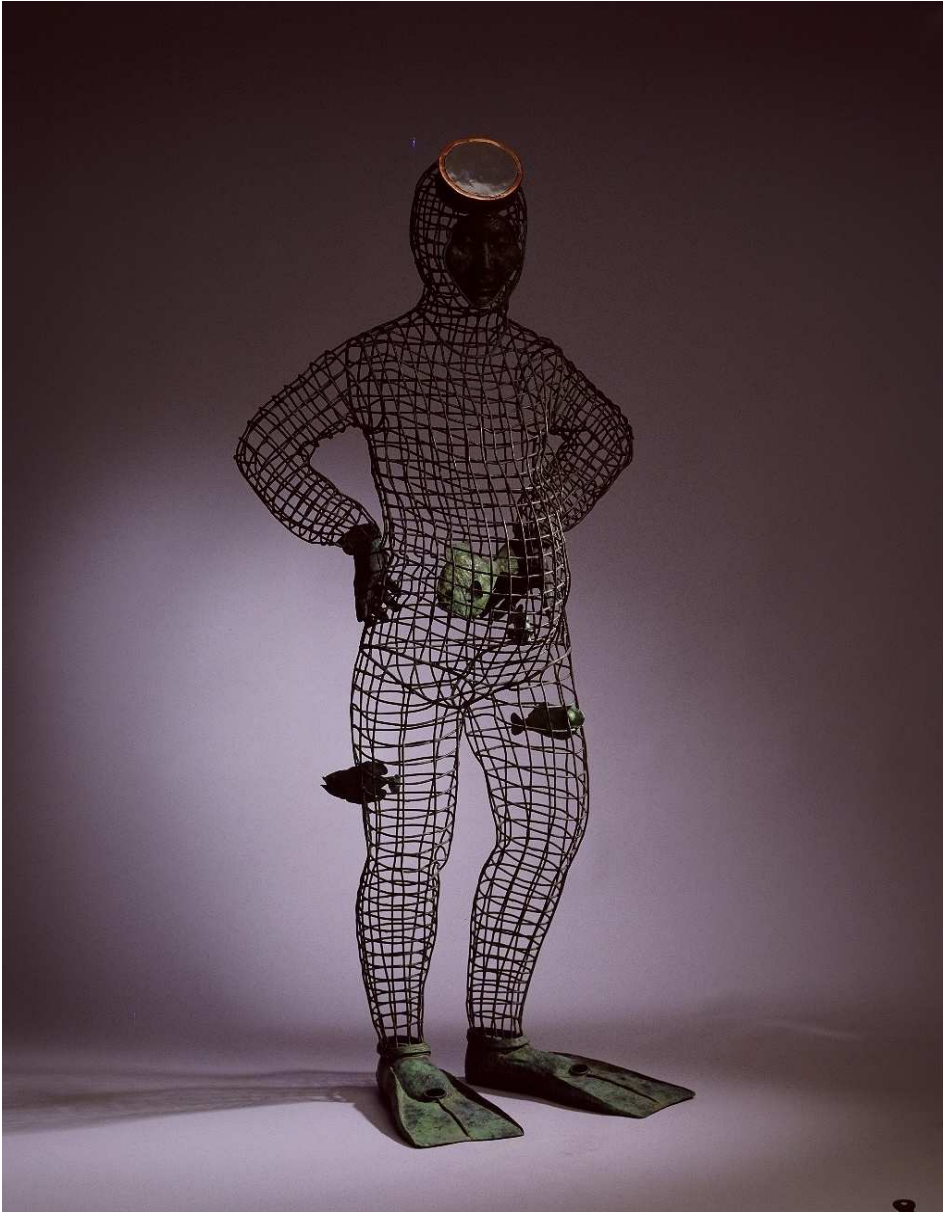
본인 작품의 주된 재료는 동과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동은 자연에서 생성된 것으로 전통적 재료에 속하는 철에 비해 응용점이 낮아 구상적인 형태를 제작함에 있어 용이하며, 특유의 광택과 세월이 흐름에 따라 푸른 녹이 나는 색으로부터 암갈색, 흑색조의 검정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연마처리 되거나 화학처리 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슬지 않는 철로 알려진 내후성이 강한 강재이다. 내후성강재는 전혀 녹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보통 철강에 비해 그다지 녹슬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일반 철은 녹이 슬어 부식되지만 내후성 강재는 특수합금에 의해 부식으로부터 철판을 보호하는 산화피막을 형성하여 부식을 방

지한다. 또한 연마과정을 통해 다양한 표면의 느낌을 줄 수 있으며,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에 있어 주재료로 사용되는 동은 산소불대를 이용하여 동선을 녹여 석고 틀에 떨어뜨리는 주조방식으로 손과 얼굴을 만들었다. 이 기법을 통해 표면의 자연스럽고 우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 느낌은 제주석인 현무암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동판을 두들기는 단조기법으로 몸을 만들기도 하고, 흙으로 빚어 석고를 떠낸 후 그 석고 틀에 동작업을 이어가는 과정들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각 재료의 특성들이 소멸되지 않고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물고기의 형상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알콘 용접을 통해 뼈대 선으로 구형을 이루며, 이것은 물고기의 생략과 비움의 은유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해녀 형상의 동봉작업으로도 이어진다. 또한 단단한 동선뼈대는 단순히 윤곽만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느끼게 하는 촉각작용이 일어나도록 표면이 울퉁불퉁한 동선에 실려 있다.

【작품 6, 7】에 등장한 산업폐기물은 현대문명의 상징물로써,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버려진 오브제의 사용은 단순히 표현 매체로의 역할이 아니라, 개념을 포함한 어떠한 형상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법적인 면에서 사용되었다.

### 3. 작품분석



【작품1】 자연과 인간의 공존

850×500×160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2003

【작품1】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재 료 : 동, 스테인리스 스틸

크 기 : 850×500×1600mm

제작연도 : 2003

- 제작방법 : 1) 인체는 소조작업 후 석고 틀을 제작하고, 인체의 마스크와 손은 산소불대를 이용하여 동을 녹여 주조한 후 부식.
- 2) 몸체는 동선을 이용하여 산소용접 후 부식.
- 3) 물안경은 스테인리스 스틸 연마를 통해 광택처리.
- 4) 물고기, 오리발은 동판을 이용하여 단조기법으로 제작 후 부식.

본인의 제주도에 대한 유년시절의 대한 기억, 이미지를 통해 해녀의 형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해녀의 형상은 어망과 같은 망을 구조로 하여 표현하였으며, 해녀의 내부·외부 공간을 들고 나는 물고기의 움직임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바다를 연상케 하며, 해녀의 삶을 엿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해녀와 물고기의 형상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녀의 몸과 생활을 통해 생명의 순환에 대한 긍정을 표현하여 하였다.



【작품2】 자연과 인간의 공존  
500×500×30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2003

【작품2】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재 료 : 동, 스테인리스 스틸

크 기 : 500×500×300mm

제작연도 : 2003

제작방법 : 1) 두상은 소조작업 후 석고 틀을 제작하고, 산소불대를

이용하여 동을 녹여 석고 틀에 떨어트려 주조한 후 부식.

2) 두상의 뼈대는 동선을 이용하여 산소용접 후 부식.

3) 원형 스테인리스 스틸은 연마를 통해 광택처리.

4) 물고기는 동판을 이용하여 단조기법으로 제작 후 부식.

눈을 감고 누워있는 해녀의 두상과 그 공간 속에 한 마리의 물고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해녀와 물고기는 ‘바다’라는 공통된 자연적 환경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자연의 일원으로써, 해녀와 물고기가 서로 먹고, 먹히는 생물계의 한 생물 종으로 인식함으로 인간은 자연의 한 종으로 자기실현을 하는 것이며, 자연의 일부분임을 표현하려하였다.



【작품3】 자연과 인간의 공존  
2700×1200×250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오석, 2004

【작품3】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재 료 : 동, 스테인리스 스틸, 오석

크 기 : 2700×1200×2500mm

제작연도 : 2004

- 제작방법 : 1) 해녀의 인체 점토를 이용한 소조작업 후 석고 틀을 제작하고 단조기법을 통하여, 몸체의 형상을 제작하였다.
- 2) 손과 얼굴, 발은 산소불대를 이용하여 동을 녹여 석고 틀에 떨어뜨리는 주조 후 부식.
- 3) 물고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를 이용하여 알곤용접.
- 4) 물고기, 오리발은 동판을 이용하여 단조기법으로 제작 후 부식.
- 5) 자연석인 오석을 이용 윗부분은 연마 후 광택.

망울 구조로 한 [작품 1,3,5]의 해녀의 형상과 달리 물고기의 망 구조 형상 속에 해녀와 물고기들이 공존을 형상화 하였다. 속이 빈 물고기의 투명성은 해녀 삶의 터전인 바다를 연상시키게 하며, 해녀와 물고기의 관계묘사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해녀를 담고 있는 망구조물은 전체로서의 자연을 의미하고 해녀와 물고기는 부분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길 바라는 동양의 전일적세계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4】 자연과 인간의 공존,  
1050×1000×130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2004

【작품4】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재 료 : 동, 스테인리스 스틸

크 기 : 1050×1000×1300mm

제작연도 :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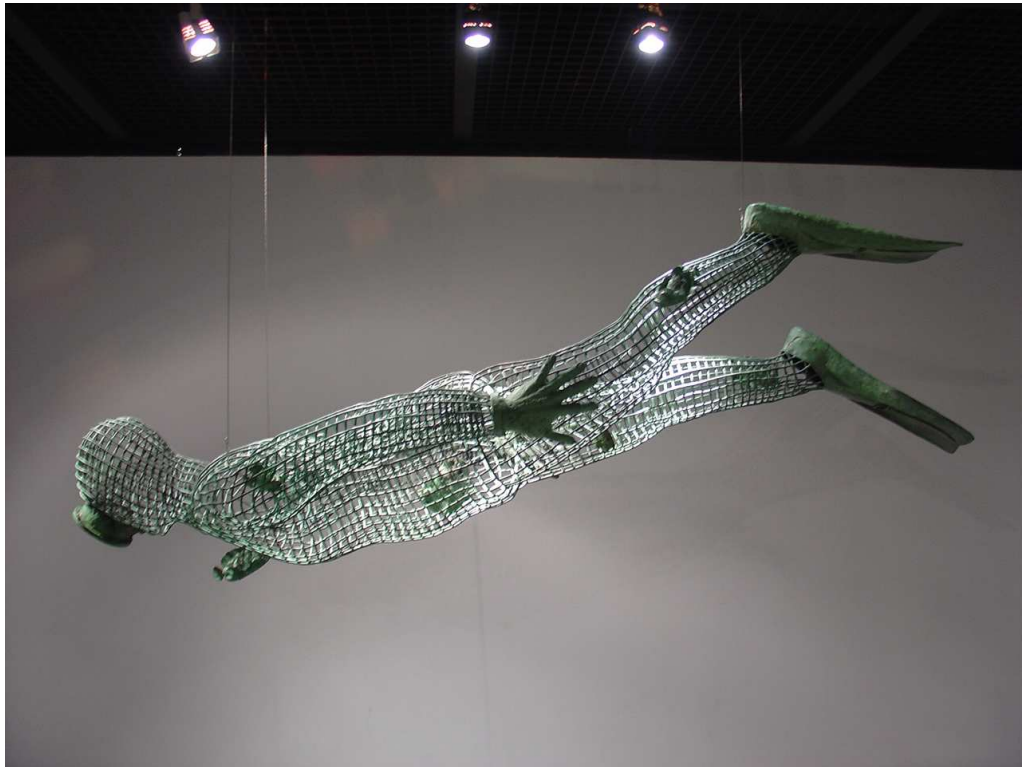
제작방법 : 1) 인체는 소조작업 후 석고 틀을 제작하고, 인체의 마스크와

손은 산소불대를 이용하여 동을 녹여 주조한 후 부식.

2) 몸체는 동선을 이용하여 산소용접 후 부식.

3) 물고기, 오리발은 동판을 이용하여 단조기법으로 제작 후 부식.

【작품 1】 과 같은 형식의 작품으로 해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해녀를 형상화하였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 삶을 살아가고, 자연을 통하여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해녀 내부공간의 물고기와 해녀 외부공간의 물고기형상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동시적 공존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5】 자연과 인간의 공존  
1700×500×400mm, 동, 2005

【작품5】 자연과 인간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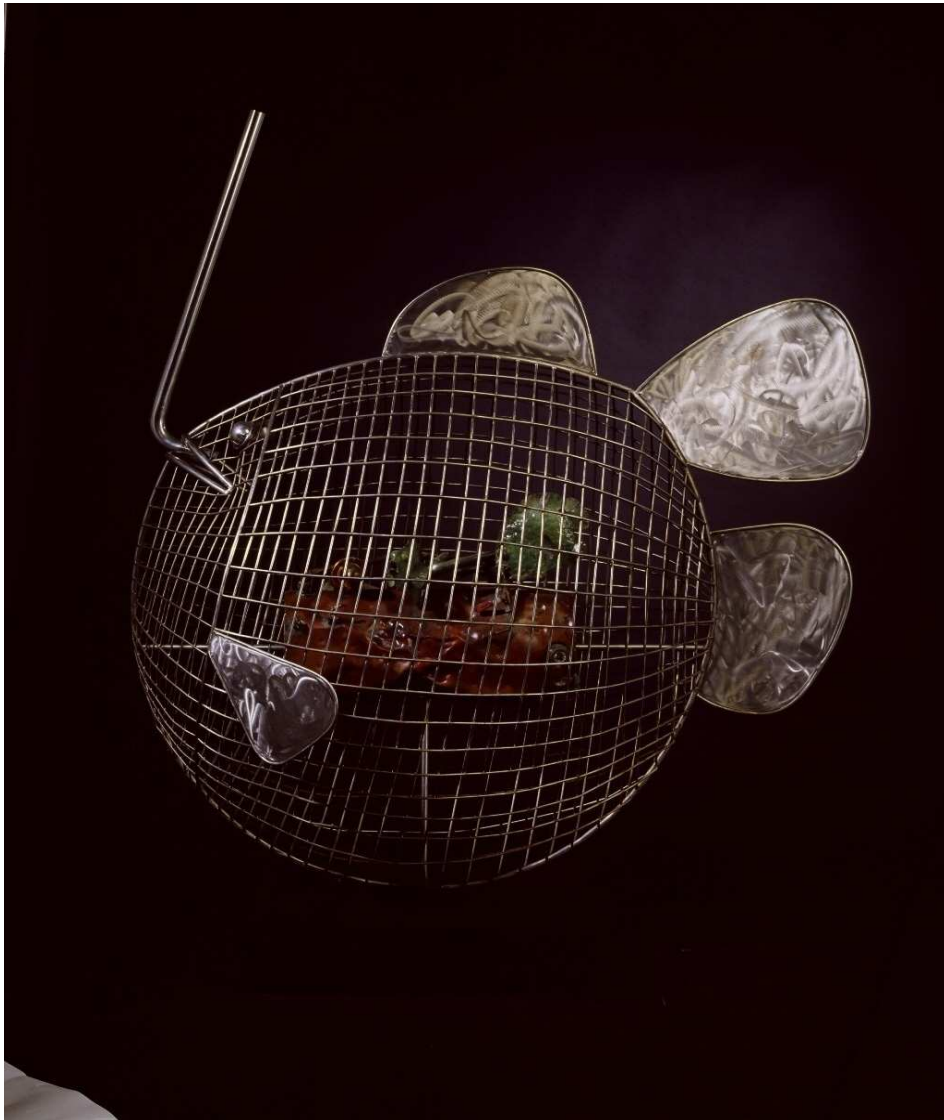
재 료 : 동

크 기 : 1700×500×400mm

제작연도 : 2005

- 제작방법 : 1) 인체는 소조작업 후 석고 틀을 제작하고, 인체의 마스크와 손은 산소불대를 사용하여 동을 녹여 주조한 후 부식.
- 2) 몸체는 동선을 이용하여 용접 후 부식.
- 3) 물고기는 동판을 이용하여 단조기법으로 제작 후 부식.
- 4) 와이어를 이용하여 가변설치.

【작품1】, 【작품4】와 같이 망을 구조로 한 해녀의 형상을 와이어를 이용하여 해녀가 입수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해녀 형상의 외부공간은 바다가 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바다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자연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6】 자연과 인간의 공존  
1400×1850×1650mm, 동, 스테인리스 스틸, 2004

【작품6】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재 료 : 동, 스테인리스 스틸

크 기 : 1400×1850×1650mm

제작연도 : 2004

제작방법 : 1) 물고기의 외형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이용 알곤용접.

2) 물고기의 지느러미 스테인리스 스틸 알곤용접 후 연마.

3) 물고기는 동판을 이용하여 단조기법으로 제작 후 부식.

4) 산업폐기물 오브제 이용하여 알곤용접.

망으로 이루어진 물고기의 투명성을 통하여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버려진 산업폐기물과 물고기가 공존하여 살고 있음을 형상화하였다.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는 물고기의 형상과 폐기물의 오브제 사용은 현대 문명이 가져다준 생태적 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작품7】 자연과 인간의 공존  
1000×900×1850mm, 동, 오브제, 2005

【작품7】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재 료 : 동, 오브제

크 기 : 1000×900×1850mm

제작연도 : 2005

제작방법 : 1) 인체의 형상은 산업폐기물 오브제를 이용 산소용접.

2) 물고기, 발은 동판을 이용 단조기법을 통해 제작 후 부식.

폐기물을 사용하여, 로봇과 같이 비인간화 되어 있는 인체를 형상화 하고 그 속에서 존재하는 물고기 또한 상처를 받은 듯 불완전한 형상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현대 문명이 가져다준 문제점(비인간화, 생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하였으며,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작용하여 한 부분이 훼손되면 다른 부분과 더불어 파괴된다는 일체적 사고방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Ⅲ. 결론

인간은 자연 일부이다. 모체이자 스스로의 커다란 부분인 자연은 그리하여 인식과 실천의 주체이며 동시에 인식의 대상이다. 인간의 예술 활동은 이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유과정을 바탕으로 작가들은 자신의 의식과 상상을 새로운 조형 세계로 창조해 왔다.

본인은 성장과정의 배후에 직접적으로 자리잡은 자연에 대한 통속적인 “향수”와 근원적인 “상실감”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동양의 자연관을 통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해녀와 물고기의 형상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인의 작업은 물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해녀”라는 전형과 물고기라는 전형의 다각적 관계묘사를 통해서 표현 되어졌다.

조형적으로는 선재를 사용하여 해녀와 물고기의 채우고 비우는 서로 다른 공간 구성으로 표현되어졌다. 두 이질적인 공간은 따로 존재하기도 하며 이웃하여 함께 작용하면서 유기적 결합관계를 연상시키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해녀와 물고기의 빈 공간 표현은 자연과 인간의 동시적 공존을 표현하고 기타 인공적 조형물의 채워진 영역은 그 둘 사이의 불화와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와 불화의 극점에 폐기물의 오브제가 있다. 이 새로운 오브제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형화함으로써, 자연의 한 부분의 훼손되면 다른 부분과 더불어 파괴된다는 일체적 사고방식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회복을 위한 정신적 가치의 필연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은 끊임없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물과 세계를 관찰하고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더불어 표현방법의 형식과 다양한 재료적 탐구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조형화 작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만이 아직 미진한 사유와 형상화의 작업을 고도화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1. 이남영, 「서경덕의 철학사상」, 동명사, 1987
2. 이영찬, 「유교사회학」, 예문서원, 2001
3. 크리스토프 카프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 1998
4.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8
5.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철학대사전」, 동녘, 1994
6. 「한국세계대백과사전」, 동화문화사, 2000
7. 주혜원, 「자연을 통한 내적 공간표현」, 이화여대 대학원 논문, 2005
8. 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미진사, 2001

# ABSTRACT

## **A Study on Formative Properties through the Shape in Woman Diver and Fish**

**- Centering on a Work in the Identical Person -**

Lee Seung Soo  
DePartment of Sculpture of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ast 20th century was characterized by one age of "victory" scientifically and culturally in the human history. As the scientific development and the material richness in mankind are the motive and the result of this "victory" during this period, it came to reach replacing the looks of human lif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a human being has been expressed in diverse forms through art from the primitive age to today. In the early human history, nature was the target of "fear and awe," and with reaching the modern times in which material convenience and comfort came to be enjoyed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t was the target of "conquest and utilization." Thus, the remarkable victory of human beings in "conquest and utilization" today brought about

“abundance in material and in information” and about the wholly global dominance of the species group. However, in the face of this great success, mankind is still in the original lack and in a new sense of loss that failed to overcome. This “sense of loss” was the fundamental cause for the nature–friendly orientation in people.

With reaching this stage, the person in question pays attention to a point that nature was the original self “Identity” in human beings. It comes to be discovered the loss of “human nature” by being further advanced from “victory” over nature which mankind enjoyed by allowing nature to be other itself, and the loss of “naturalness” which is immanent in human beings.

This interpretation in the identical person and the modeling work based on it, were strongly encouraged especially through the oriental view of the world that a human being has recognized oneself as 'the existence within nature.' The work in the identical person was started from the process of any reason, and is the aim that describes what the work as its result is indicating. Thus, aiming at this, it composed totally 3 chapters such as the opin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me, the background in the formation of a work, and the formatively expressive method and the description on individual work, centering on a work.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it described the opin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me called “immanent nature” in a human being based on the oriental view of the world, and the process of coming to have a significance as a work in making it typical and revealing it as the shape,

and explained the research aim,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scope.

In the main subject of Chapter 2, it described materials that were used the image of a woman diver and a fish, which are typical “model” in hometown Jeju-do, and the expressive methods, as the specific form of a work. Also, aiming to explain the individual work, it described the photos in a work, the manufacturing method of a work, and contents.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it described the ultimate aim of the work in the identical person,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activity in a work down the road, with summarizing the contents of this study.